

구주피나무

L A N D S C A P I N
G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피나무과
- ▶ 학명 : *Tilia kiusiana*
- ▶ 일명 : へらのき



▲ 구주피나무

일본의 본주(本州), 사국(四國), 구주(九州)에 분포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병충해에도 강하고 밀원식물로서도 유용하여 정원수, 공원수, 목재는 재질이 좋아 기구, 기기, 연필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된다.

꽃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화려한 꽃에는 꿀이 없거나 적고 꽃이 아름답지 못한 구주피나무는 달콤한 향기와 맛 좋고 풍부한 꿀로서 벌을 유인해 수정을 한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은 유난히도 향기가 좋고 맛이 좋은 피나무나 싸리 꿀을 많이 생산하기도 한다.

구주피나무는 특별히 전정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며 시비는 가을에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시용 하는 것이 좋으며 병해충의 발생은 매우 적은 수종이다.



▲ 구주피나무



▲ 구주피나무

1. 생태적 특성

일본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1930년 경에 도입되어 전국의 공원 등에 식재되고 있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10~15m에 달한다. 주로 양지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잘 견디며 성장속도가 빠르다. 건조에 견디는 힘이 다소 있으나 토심이 깊고 비옥 적운지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해안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며 천연하종(天然下種) 발아가 잘된다.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곧게 자라며 원정형의 수형을 이루며 수피는 옅은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이그러진 좁은 난형으로 끝이 꼬리처럼 길며 밑 부분은 이그러진 얇은 심장저이고 길이 5~8cm, 넓이 2.5~5.0cm로 양면 맥 위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산방상 취산화서는 가지 끝 부분의 잎 겨드랑이에서 나오며 20여개의 꽃이 밑으로 처져서 피고 꽃자루에 포엽이 달린다. 꽃은 자웅동주로 6월에서 7월에 걸쳐 황색으로 피며 꽃잎은 모두 5개이고 수술은 많지만 꽃밥이 없는 수술도 있으며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둥글고 길이 4~5mm의 핵과로 표면에 갈색 털이 밀생하고 10~11월에 황백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6월에 피는 황백색 꽃은 은은한 향기가 좋으며 꿀샘이 깊어서 대표적인 밀원식물로 이용된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병해충의 피해가 적어 빠른 시간 내에 녹화하고자 하는 공원이나 학교 교정에 식재 할만 하다, 유용활엽수로 도시 주변이나 마을 주변의 평탄한 유희지 같은 곳에 식재하여 키울 만하다.

잔뿌리가 많지 않아 큰 나무를 이식코자 할 때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몇 해 전에 뿌리돌림을 하여야 이식 후 활착이 잘된다.

4. 번식법

10월경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파종하는데 발아력이 매우 높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가공이 용이하여 기구, 기기, 연필재, 조각재, 바둑판 등을 만드는데 쓰이며 수피는 질겨서 노끈으로 이용하거나 샷자리를 만드는데 쓰인다. 